

의정소식

구민 복리 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힘 없이 발로 뛰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제 32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신명,몽들(정용환,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 04 발간사
- 05 제8대 후반기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복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제8대 후반기 복구의회 개원
- 08 제8대 후반기 김상태 의장 취임 인터뷰
- 10 제8대 전반기 의원현황 및 정수
- 11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 12 주요의정활동
제216회 임시회
제217회 임시회
제218회 정례회
제219·22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 20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2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 24 현장 속으로
- 26 결의안, 건의안,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 49 2024년도 상반기 포토의정



표지설명 | 동대산으로 가는 아름다운 단풍길
(임송태,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발행일 | 2024년 상반기, 제32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1~8976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여러분!
북구의회 의장 김상태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의 의정활동을 담아 낸 '의정소식지 제32호'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다 높은 신뢰로 주민 모두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의회로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상반기에도 22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의롭고 공정한,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대변인이자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민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구민을 위한 생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6월 말로 8대 전반기가 종료되고 7월부터 하반기 임기를 시작하며 총 임기 4년의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후반기 북구의회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려 합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할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망의 역할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어 생산적인 논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민생 현안을 적극 해결하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 데 있어 북구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김상태**

▣ 제8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성 명 김상태
연락처 010-3854-1103
선거구 농소 2·3동



부의장

성 명 조문경
연락처 010-5232-4625
선거구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장

성 명 박재완
연락처 010-9697-7139
선거구 농소1·송정동



행정자치위원장

성 명 손옥선
연락처 010-7760-6745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복지건설위원장

성 명 박정환
연락처 010-9359-8572
선거구 농소 2·3동



의 원

성 명 김정희
연락처 010-3469-1522
선거구 농소1·송정동



의 원

성 명 이선경
연락처 010-8545-0266
선거구 농소 2·3동



의 원

성 명 강진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의 원

성 명 임채오
연락처 010-4844-5405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 의원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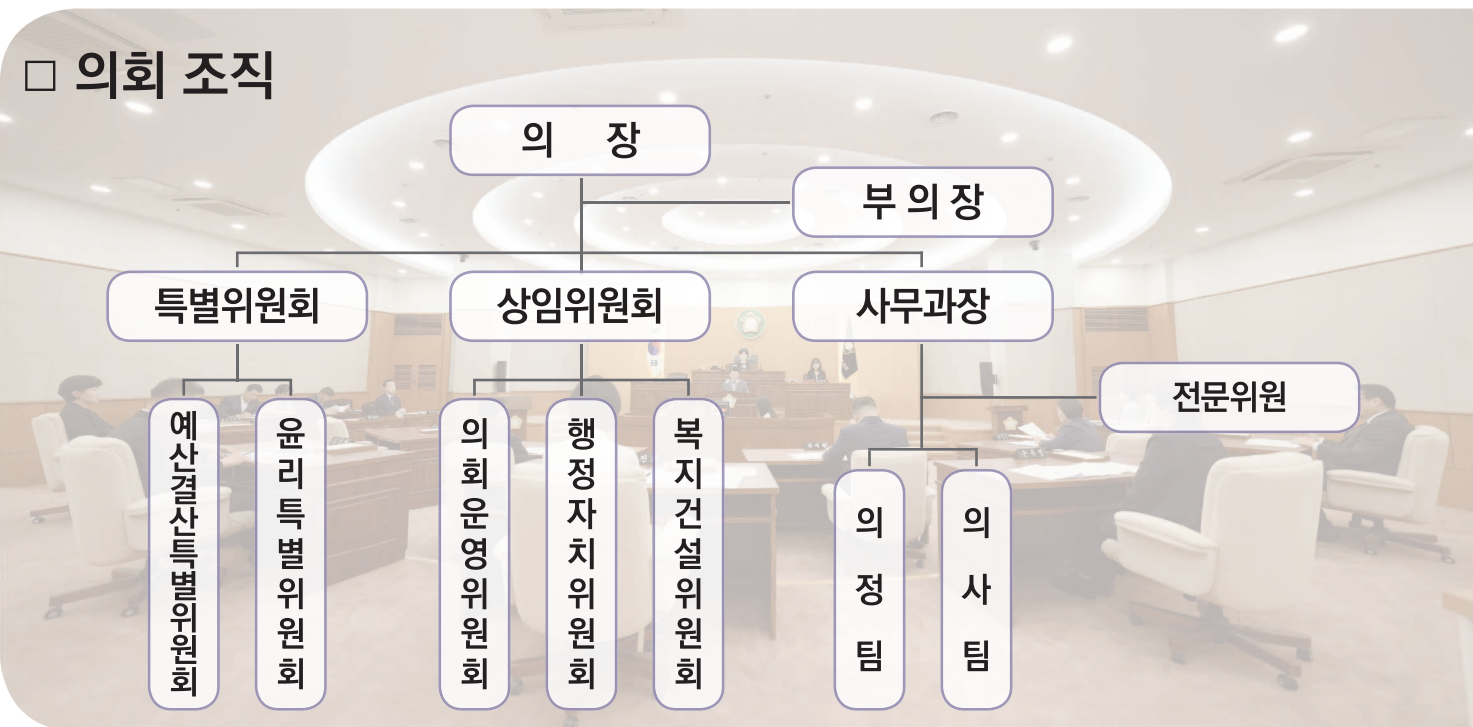
계	가선거구 (농소1·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9	2	3	3	1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복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 7. 1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임기 : 2018. 7. 1. ~ 2022. 6. 30.
- 2020. 1.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20. 4.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22. 7. 1 제8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9명)
- 임기 : 2022. 7. 1. ~ 2026. 6. 30.

□ 의회 조직



제8대 후반기 울산북구의회 개원



울산북구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무소속 김상태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으로는 국민의힘 조문경 의원이 당선됐다.

북구의회는 6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의장 선거에는 무소속 김상태 의원이 단독 출마해 당선의 영예를 안아 2년간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김상태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항상 초심을 기억하며 겸손한 자세로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오직 22만 구민의 행복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제시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비전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의회’로 도약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역시 단독 출마한 국민의힘 조문경 의원이 당선됐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박재완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손옥선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 같은 당 박정환 의원이 복지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울산북구의회는 지난 6월 26일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김상태 의원을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임했다. 김상태 신임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배려 강화, 정책 연구와 개발 지속 등을 강조했다. 특히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와 중산스포츠타운 건립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 수준을 향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상태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8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은 소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반기에 아쉬웠던 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후반기에는 의원들 간의 지혜와 협력을 통해 복구와 주민들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 간에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책임감과 헌신적인 자세로 의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 전반기 북구의회를 돌아본다면?

9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7명이었던 전반기에는 많은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이 많았지만, 이를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의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정책 연구와 개발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회의 장기적인 발전과 복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후반기에서는 의회 내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의견 조율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구의 가장 큰 현안과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구의 발전을 위한 현안은 꿈꿀 수 없이 많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가 있습니다. 이는 교통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울산역의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와 KTX-이음 정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교통 데이터와 지역 경제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유치의 장점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북울산역의 주차 공간과 버스 노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개선사항을 KTX-이음 정차역 유치와 연계해서 홍보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와 언론을 통해 KTX-이음 정차역 유치의 필요성과 장점을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힘 기울이려 합니다.



미래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도 빠뜨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북구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조립금속업 등으로 구성되어 내연기관 부품 시장 축소에 대비하여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업구조를 미래형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군으로 재편하고, R&D 중심의 혁신과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등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및 육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조립금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미래형 자동차 부품 제조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R&D 중심의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전환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단계별 재편 및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연구 기관, 정부와 협력하여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울산의료원 설립, 농소2동 주민숙원사업인 농소2동 중산스포츠타운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 합니다.

특히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청년층 및 가족 지원 강화, 경제적 유인 및 지역 활성화, 정부 및 지역 사회 협력,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축구장 하나로 비효율적으로 진행 중인 중산스포츠타운의 경우 연구용역 조사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국·시비를 받아 복합체육센터로 조성하도록 힘 기울이려 합니다.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와 북구청, 울산시,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 후반기 북구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모든 의사 결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 정책 결정 과정 투명화를 이뤄내려 합니다.

의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으며,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없고 여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역 발전과 안녕, 그리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 착고우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북구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전반기 의원현황 및 정수

제8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성 명 김 정 희
연락처 010-3469-1522
선거구 농소1 · 송정동



부 의 장

성 명 이 선 경
연락처 010-8545-0266
선거구 농소 2 · 3동



의회운영위원장

성 명 박 정 환
연락처 010-9359-8572
선거구 농소 2 · 3동



행정자치위원장

성 명 박 재 완
연락처 010-9697-7139
선거구 농소1 · 송정동



복지건설위원장

성 명 조 문 경
연락처 010-5232-4625
선거구 비례대표



의 원

성 명 김 상 태
연락처 010-3854-1103
선거구 농소 2 · 3동



의 원

성 명 강 진 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의 원

성 명 손 옥 선
연락처 010-7760-6745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의 원

성 명 임 채 오
연락처 010-4844-5405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의원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 · 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 · 농소3동)	다선거구 (강동 · 효문 · 양정 · 염포동)	비례대표
9	2	3	3	1



회기운영 현황(2024. 1. 1. ~ 6. 30.)

구분	계		임시회		정례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2024년 상반기	4	44	3	29	1	15

안건처리 현황

회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건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216회 (2024.02.16.~02.28.)	13	21	0	0	7	0	5	1	0	4	5
제217회 (2024.04.18.~05.02.)	15	22	1	0	6	0	2	0	0	7	6
제218회 (2024.06.10.~06.24.)	15	28	0	2	10	0	1	0	1	8	6
제219회 (2024.06.26.)	1	2	0	0	0	0	0	0	0	0	2
합계	44	73	1	2	23	0	8	1	1	19	1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16회 || 임시회 2024. 2. 16. ~ 2. 28. (13일간)

울산북구의회가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제2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조례안 등을 종합 의결했다.

북구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의안 9건을 처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인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선경 의원 대표 발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발의)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북구청에서 접수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박재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의 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김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으로 이송했다.

북구의회는 13일간 개최한 이번 임시회에서 북구청 각 국 및 부서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결산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앞서 16일 열린 이번 임시회 개회식에서는 박재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촉구 결의안'과 임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이 이의 없이 가결, 채택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17회 || 임시회 2024. 4. 18. ~ 5. 2. (15일간)

울산북구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 이어진 제2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북구의회는 5월 2일 본회의장에서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북구가 제출한 2024년도 1회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북구는 앞서 제1회 추경안으로 301억5천593만4천원을 증액한 5천147억144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과 같이 9천837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집행 잔액 5천102만1천원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이자 4천134만9천원, 세출예산에서 △보건행정과 검사 장비 인터페이스 비용 600만원이 불필요한 예산으로 꿈혀 전액 삭감됐다.

추경안 의결 후에는 이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경제 회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선경 의원은 건의안 낭독을 통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서민경제 붕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김상태 의원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제언’, 손옥선 의원이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체육시설 할인 요구’, 박정환 의원이 ‘북구의회 후반기, 미래지향적 복구 발전을 위한 제언’, 조문경 의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18회 || 정례회 2024. 6. 10. ~ 6. 24. (15일간)

울산북구의회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며 제8대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또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 의원 대표 발의)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태 의원 대표 발의)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임채오 의원 대표 발의) 등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재완 의원은 ‘공공의료원 및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관련하여’를 주제로 박천동 구청장에게 구정 질문을 펼쳤다.

이에 앞서 김상태 의원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의 새로운 도약’, 박재완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이선경 의원이 ‘울산쇠부리축제의 비상(飛翔)을 위한 쓴소리’, 박정환 의원이 ‘환경문화 - 물의 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북구의회는 2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감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북구의회는 지난 2년간의 전반기 동안 206일, 17회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105건, 예산 및 결산안 19건, 동의안 8건, 승인안 2건, 규칙안 7건, 결의안 12건, 건의안 7건, 보고 10건, 청원 1건, 기타 91건 등 모두 26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구정·서면 질문 12건과 5분 자유발언 69회를 실시했으며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16건을 시정 요구하고 199건을 건의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19·220회 || 임시회 2024. 6. 26. / 7. 1. (각 1일간)

울산북구의회가 6월 26일과 7월 1일 제219회, 제220회 임시회를 각 1일씩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 및 배정을 마무리했다.

북구의회는 26일 제219회 임시회를 통해 김상태 의장과 조문경 부의장을 선출했다.

같은날 상임위원장 선거도 진행했는데 무소속 박재완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손옥선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 같은 당 박정환 의원이 복지건설위원장으로 당선했다.

북구의회는 7월 1일에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부위원장 선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는 임채오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박정환, 손옥선 의원을 위원으로 배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선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박재완, 강진희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조문경 의원을 부위원장, 김정희, 임채오 의원을 위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도 선임했는데 이선경 의원을 위원장, 손옥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김정희, 박재완, 박정환, 강진희, 임채오, 조문경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정환)는 2024년 상반기 제216회부터 219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6차례의 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2024년 상반기 제216회부터 219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17차례의 회의를 열어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으로 청년공간 '와락' 등을 방문해 시설을 직접 확인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2024년 상반기 제216회부터 219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17차례의 회의를 열어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으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산사태 복구 현장 등을 방문해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제216회부터 219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4차례의 회의를 열어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216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 ▶ 불채택(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 울산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람.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청소년 문화의 집(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이 추가 건립되어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기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년도(2023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한 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제217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보조금법」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폐지(시행 2023. 7. 10.)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가유산기본법」시행(‘24. 5. 17.)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북구 향토유산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4. 5. 17. 시행)되고, 연계 법률이 제 개정(‘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 및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시행 2023. 7. 10.)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자원순환실천 등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행화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원안가결**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학습비 감면기준’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학습비의 구체적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본 조례의 목적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정의와 학교 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개정(시행 ‘24. 4. 1.)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가 배분됨에 따라 그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일시 : 2024. 1. 31.

발의자 : 박재완 의원(대표발의) 외 4명

제안이유 : 경기침체, 고용악화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4. 2. 28.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발의일시 : 2024. 1. 31.

발의자 : 이선경 의원(대표발의) 외 4명

제안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 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4. 2. 28. 제216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발의일시 : 2024. 1. 31.

발의자 : 박정환 의원

제안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울산광역시 북구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4. 2. 28. 제216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일시 : 2024. 1. 31.

발의자 : 조문경 의원(대표발의) 외 2명

제안이유 :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통신 수단으로써의 아마추어무선망의 운용, 교육·훈련,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활동 등 아마추어 무선의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 2024. 2. 23. 제216회 복지건설위원회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일시 : 2024. 2. 14.

발의자 : 박정환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 12. 14.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4. 2. 28. 제216회 제2차 본회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일시 : 2024. 5. 30.
발의자 : 이선경 의원(대표발의) 외 4명
제안이유 :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신설과 구체적인 위탁 취소사유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4. 6. 24. 제218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복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일시 : 2024. 5. 30.
발의자 : 김상태 의원(대표발의) 외 6명
제안이유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 공동체 공간 조성, 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근거 명시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
 ▶ 원안가결 - 2024. 6. 24. 제218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복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일시 : 2024. 5. 30.
발의자 : 임채오 의원(대표발의) 외 6명
제안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른 복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4. 6. 24. 제218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일시 : 2024. 5. 30.
발의자 : 김상태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응시 수수료 면제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4. 6. 24. 제218회 제2차 본회의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



울산북구의회가 설을 앞두고 북구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면서 1분기 정기 자원봉사활동도 펼쳤다.

김정희 의장을 비롯한 북구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1월 29일 ‘설맞이 복지시설 방문활동’으로 대안동 소재 태연재활원을 찾아 세탁 세제와 비누 등의 위문품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재활원 장용석 시설장으로부터 시설 개요와 입소자, 종사자 현황 및 시설 운영 애로사항을 들은 후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입소자 재활치료 봉사에 나섰다.

조별로 나눠 물리치료와 미술, 음악, 운동 및 승마 재활치료에 나서는가 하면 저녁식사를 위한 식재료 다듬기 봉사활동도 펼치면서 입소자 및 종사자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의회는 이날 재활원 방문에 앞서서는 화봉동의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를 방문, 위문품을 전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안정적인 환경 제공에 힘쓰는 이 시설 관계자들을 응원했다.

2024년도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서약

울산북구의회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북구의회는 5월 2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참가 속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2024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의거한 필수 교육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오송록 강사가 특강을 펼쳤다.

특강에 이어서는 의정활동을 청렴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이 직접 청렴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선경 부의장 ‘지방의정 봉사상’ 영예



울산북구의회 이선경 부의장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4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선경 부의장은 6월 20일 의장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정희 의장으로부터 지방의정 봉사상을 전수 받았다.

이 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발전 및 지방자치

전문성 강화에 힘쓴 의원에게 수여한다.

이 부의장은 구의원으로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 받는 열린 의회 구현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적극 참여 등으로 구민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선경 부의장은 “의원으로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이처럼 의미 있는 상을 받았다”면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북구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는 상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위탁사업·자치회 강화 연구용역 확정

울산북구의회가 북구의 민간위탁 사업을 진단 및 개선하는 방안과 지역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6월 20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4년 의원연구단체 정책 연구용역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연구용역 과제 두 건에 대한 수행 여부를 심의해 확정했다.



확정된 용역 과제는 ‘지방재정발전연구회’의 ‘북구 민간 위탁 사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과 ‘주민자치정책연구회’의 ‘북구형 주민자치회 모델 정립 연구’다. 지방재정발전연구회는 조문경 의원이 대표 의원, 박정환, 강진희, 손옥선 의원이 참여 의원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북구의 민간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 및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및 실행 방안을 찾아 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임채오 의원이 대표 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재완, 김상태 의원이 참여 의원으로 용역 과제를 수행한다. 운영 및 재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주민자치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원 취지에 맞게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결 의 안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6회 임시회(2024. 2. 16.)

발언요지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촉구 결의안

울산 북구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 표명과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 가공식품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우려에 응답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의 모든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도쿄전력은 2024년 2월 하순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제4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태평양 국가들과 일본 어민을 비롯한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3차례에 걸쳐 무책임하게 오염수를 방류해 왔다. 그에 이어 이번에는 2024년 내에 제10차 방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중국 등 인접국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나타냈으며 중국에 이어 러시아 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취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홍콩과 마카오 또한 생선, 소금, 해초 가공품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모든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며 제4차 방류에 앞서 그 어떠한 반대의 뜻도 표명한 바 없다. 오히려 일본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을 홍보하는 하수인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수산물 수입 문제는 외교적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 수입 규제 대상이 아닌 수산가공식품은 어떤 제한도 없이 수입되는 중이다.

수산물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검사 기준은 세슘과 요오드 2개 항목뿐으로 오염수 처리장치인 ALPS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와 탄소14 등은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더 강력한 수입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사능 노출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해양 오염에 관한 우려에 응답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를 포함한 모든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결 의 안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발언일시 : 제216회 임시회(2024. 2. 16.)

발언요지 :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

울산 북구의회는 매곡배드민턴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당시 누군가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감사를 북구청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매곡배드민턴장은 2014년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공유수면 부지에 임시 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후 체육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건축물이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불법성이 드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하천 유실로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23년 추경에 철거예산 1억 8,500만 원의 구비를 편성, 철거를 완료하였다.

누군가의 불법행정으로 주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북구 주민들은 불법 행정으로 인해 주민 혈세가 낭비된 사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불법행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세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임용권자인 선출직 단체장의 직무에도 엄격히 적용되는 범죄이다. 「형법」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17년 해남군의 판례를 보면, 군수의 지시로 공무원들이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고 법원은 임용권자인 군수에게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단체장의 불법행정 업무지시를 따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선출직 상관은 부하 직원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고, 부하 직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구청은 내부 진상 조사를 통해 불법 행정의 원인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등 적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향후에도 북구청 공무원들이 불법행정으로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매곡배드민턴장 부지선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지시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내부 진상 조사를 통해 불법 행정의 원인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결정권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철거된 매곡배드민턴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배드민턴 체육인들의 편의를 위한 대체시설을 조속히 마련하라.



결 의 안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8회 제1차 정례회(2024. 6. 10.)

발언요지 :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은 영토의 제약으로 인해 내수 시장만으로는 기업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영업 활동을 펼쳐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자본구조 조정을 요구한 '라인 사태'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대우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인'은 일본 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며, 대만, 태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1등 플랫폼으로 메신저, 뉴스, 결제, 쇼핑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순수 일본 기술이 아닌 한국 네이버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한 결과물이다.

한국 기업이 개발한 '라인'이 일본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그간 자국 내 독자적인 플랫폼 개발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 투자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라인야후 지분을 조정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기업 강탈행위이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 자본구조 조정의 근거로 든 '개인정보 유출'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이며 그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조치가 기업 지분 정리와 경영권 변동 압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대한민국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침탈이자 경제적 차별 행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라인야후 경영권 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뒤늦게 해결에 나섰다.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현시점에서라도 국익 수호에 나선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대한민

국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와 배려에 치중해 왔다. 이 같은 외교 기조가 오히려 일본의 편향된 행태를 부추겼을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외교부 간행물 '일본개발2023'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삭제 사태까지 현 정부의 대일 외교는 '굴종외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비단 '라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향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이 'IT 후진국' 일본 정부의 불공정한 압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민·관 전문가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본과 협상에 임하라.

하나,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대응팀을 신설하여 신속히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대일 저자세 외교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임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우리 기업, 국민,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당당한 협상 자세를 견지하라.



건의안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6회 임시회(2024. 2. 28)

발언요지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정부와 여당은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서민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값은 80kg 기준 20만 원 아래로 떨어져 2000년 이후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2022년 농가별 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보다 오히려 84만 원이 적은 949만 원에 불과했다. 농민들은 원자재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자식 같은 농산물 수확을 포기하고 논밭을 뒤엎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농가에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7개 광역자치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올해 1월 15일 상임위 안전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저열한 좌파 정책이니 의회 폭거니 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함께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약화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근거 없는 기우일 뿐, 이 제도는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신(新)냉전체제에서 국가별 식량 자급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농민이, 농업이 무너지는 순간 나

라의 근간도 위태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대안 없이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가 전국 250만 명의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대안 없는 반대,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건의안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6회 임시회(2024. 2. 28.)
발언요지 :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대한민국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은 이상헌 국회의원이 2022년 당초예산에 울산의료원 설계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울산의료원은 2023년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 값 0.65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재조사에서 탈락했다.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은 단지 경제성 평가의 ‘비용 대비 편익’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재조사 시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편익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의료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울산과 광주만이 공공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공공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중도 1%로 가장 낮다.

울산은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중증 응급질환과 감염병에도 매우 취약하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는 병상 부족으로 타 지역과 민간병원에 의존해야만 했다.

올해 2월 18일 울산광역시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방향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료원이 설립되면 향후 울산광역시 인구 112만 명뿐만 아니라 경주, 영천, 양산 등 배후지역의 70만 명이

공공의료의 편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시의 면밀한 논리 설계와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울산광역시시는 울산 전역을 통틀어 공공의료기관이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한 개소뿐인 지역의 현실과 공공의료원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예타 면제의 근거로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최소한의 필수 공공의료 확보’라는 절박함 속에서 모든 울산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2021년 울산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22만여 명의 시민이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으며 울산의료원 설립은 대통령과 울산광역시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정부와 울산광역시도 공공의료원 설립의 시급성, 주민의 염원을 알고 있다는 뜻이며 이 공약을 지킬 책임이 있다.

공공의료원 확충은 단순히 국가가 병원 하나를 건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의료재난에 대응할 의료 거점을 조성한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울산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공 의료의 혜택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024년 울산의료원 건립 최종 확정 소식을 염원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건강·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 울산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울산광역시시는 예비타당성 면제 논리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총력을 기울여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라.



건의안

발언의원 : 김상태 의원
발언일시 : 제216회 임시회(2024. 2. 28.)
발언요지 :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수도권 문화기반시설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북구 발전을 위해 1만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실내구장 건립을 희망한다.

2022년 12월 울산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산업도시로 일궈온 울산은 여전히 문화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울산 북구는 2024년 1월 말기준 평균 연령 40.5세로 전국 평균 44.8세보다 낮고, 인구 21만 7천 45명으로 지역 5개 구·군 중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 특히, 젊은 인구 비율이 높은 울산 북구는 문화·여가 시설 부족으로 인해 여가생활 불만족이 심각하며, 이는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22년 울산시 사회조사 결과,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로 '여가시설 부족'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 시설 부족을 이유로 이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10.6%로 나타났다.

다목적실내구장은 여러 종목의 체육활동이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을 말하며 스포츠 경기, K-POP 공연, 전시회, 컨벤션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를 꽃피우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서울 고척스카이돔, 토트넘 스타디움 사례처럼 K-POP, 해외 아티스트 공연 유치 등 국내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토트넘 스타디움은 연간 약 2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연간 3억 4,400만 파운드(한화 5800억 원)의 경제수익을 창출하였다.

울산 북구는 2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전국체육대회, K-POP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울산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 '울산서머페스티벌'은 벌써 20번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젊은 세

대가 몰리는 K-POP 공연은 남구 울산문구축구경기장 호반광장과 중구 울산종합운동장에서만 진행되었고, 북구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여 축제 개최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북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행사를 즐기기 위해 타구로 이동해야 하며, 북구의 문화적 활동 또한 제한받고 있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울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 시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 북구에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지역 형평성에 맞게 북구에서도 체육활동 및 대규모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내구장 건립을 적극 검토하라.



건의안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발언일시 : 제217회 임시회(2024. 4. 18.)

발언요지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울산 북구의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제도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돌봄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는 2022년보다 46만여 명이 늘어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으며, 17개 시도 중 8곳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울산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5,709명으로 전체 110만 3,661명 중 15.9%가 노인 인구에 해당되며, 북구도 23,347명으로 전체 216,477명 중 10.8%가 노인 인구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이다.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과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은 사회보험제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에는 법인시설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이후 사회보험제도로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복지 법인 시설에 한해 처우개선비만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인건비 지급 비율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비 지원 또한 법인시설만 지원되어 법인과 비법인 시설 종사자 간 처우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타 지방자

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부터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3년 대한민국 노인복지증진 대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안성시도 매월 5만 원, 충북 음성군과 전남 강진군은 매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자에 한해 올해 1월부터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법인과 비법인 모두 국가자격종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한해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 입소 등급을 부여받은 어르신에 한해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다. 비법인 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국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악화로 이어져 노인들의 요양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인권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현재 법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비법인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지급하여 장기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해 종사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라.



건의안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7회 임시회(2024. 5. 2.)
발언요지 : 서민경제 회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서민경제 회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붕괴 위험에 직면한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물가가 끝없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과는 88.2% 상승해 사과 한 개 값이 만 원을 넘긴 곳도 있었으며, 감자는 71%, 배는 87.8%, 양파는 무려 110%나 폭등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것은 지난해 냉해·폭설 등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중간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산물뿐만이 아니다. 설탕도 같은 기간 27.7%, 식용유는 49.8%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폭등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을 훌쩍 넘어 35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경제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식업 등 소상공인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3고 현상에 따른 부담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내일이 무섭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기업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금액은 2022년 말 18조 2,941억 원에서 2023년 말 27조 3,833억 원으로 1년 만에 9조 원이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민생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국회가 되살렸지만, 그 금액은 지난해 3,525억 원보다 모자란 3,000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파 한 단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말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더니 서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과일 물가를 잡겠다고 바나나, 망고 등 외국산 농산물을 시장에 대거 풀고 대형마트의 배만 불리는 할인지원을 하는 등 근본 대책과는 동떨어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외면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생을 외면하는 국가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도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상시화, 로컬푸드 판매대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청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민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가뭄, 냉해, 폭설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유통구조 개혁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처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상시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라.



구정질문

질문의원 : 박재완 의원

질문일시 : 제218회 제1차 정례회(2024. 6. 24.)

질문요지 : 공공의료원 및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관련하여

공공의료원 및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관련하여

여러 해 전부터 울산 복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평동 일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공공의료원 유치'를, 올해는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를 위해 복구청과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구 슬로건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복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비교적 개발이 더딘 지역이었던 북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급격한 인구 유입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해졌고 추가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창평동 그린벨트 해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의료원 유치'와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는 창평동 일대 개발, 나아가 그린벨트 해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Q1)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서는 울산 복구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울산시와 정부가 함께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울산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실버케어센터를 설립·운영하고,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예타면제가 불발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마저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료원 건립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울산시가 건립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만큼 시의 추진 의지가 가

장 중요하며, 복구주민과 울산시민, 인근지역의 의료수요 충족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울산의료원 설립의 재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현재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월중 '기본계획 및 설립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고, 복구청과 복구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울산의료원 건립의 정상추진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저 또한 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울산의료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의료원이 건립될 때까지 울산광역시 그리고 중앙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Q2) 우리 구가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실행 방안, 추진 방법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A2) 우리 구는 현재 북울산역 KTX-이음이 정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전문기관을 통해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체 분석결과, 복구·중구·남경주 일원에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시, 수혜 인구가 33만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잠재수요가 43만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KTX-이음 유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교통행정팀에서 교통시설팀으로 업무를 재분장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지역간 공감대 형성과 지역 내·외 다양한 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경주지역 21개 기업 연합

단체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제22대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반영을 건의하고, 중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도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9일 주식회사 쓰카와 업무협약을 통해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를 위해 협조하기로 하는 등 대·내외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도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를 위한 '북구 광역교통 발전위원회'가 설립되어 10만명 목표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중구와 외동·양남·양북 등 남경주 일원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KTX-이음 정차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ubc를 통해 매일 4회씩 스포

광고가 송출되고 있으며 울산공항, KTX울산역,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주요 관문 및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ubc 시사진단 토론을 통해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에 대한 북구민들의 열망과 당위성을 충분히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는 북울산역 KTX-이음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와 같이 새로운 유치 논리와 당위성을 찾아내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레일·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울산광역시와도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북울산역에 반드시 KTX-이음이 정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질문

질문의원 : 조문경 의원
 질문일시 : 2024. 3. 6.
 질문요지 : 울산숲 관리 및 활성화 계획 등에 관하여

울산숲 관리 및 활성화 계획 등에 관하여

울산숲(기후대응 도시숲)의 일부 구간이 지난 2024년 1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울산숲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따라 울산시계부터 송정지구까지 13.4ha, 6.5km에 달하는 대규모 선형 도시숲으로, 사업비만 122억3천 800만원이 투입된 우리 구 핵심사업입니다.

향후 백년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내다보고 조성된 숲인 만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도시숲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숲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주민을 위한 명소가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우려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숲 관리 및 활성화 계획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Q1)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단풍나무 등 2만4천120그루의 각기 다른 수종을 관리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전문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화장실 등 편의시설 구축도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울산숲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성화 계획을 답변바람.

A1) 울산숲 조성 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숲 관리를 위해 2024. 1. 1.자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숲지원팀이 신설되어 울산숲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적인 숲 관리를 위해 전문직위(전문관)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토록 하

겠습니다. '2024 울산숲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과 사람을 잇는 지속가능한 명품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해 4대 전략 18개 과제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숲을 위한 전문적 유지·관리', '머물고 싶은 힐링숲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업·단체·주민 참여 활성화', '울산 대표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단체·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외 홍보영상 및 책자를 제작하여 지속적 홍보활동을 통해 민간기업 및 단체 ESG 경영활동의 기업 도시숲 조성을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 울산숲 가꾸기 지원봉사 단체를 모집하여 구간별 숲가꾸기 활동을 통하여 주민 참여형 울산숲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4월에는 '제1회 울산숲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울산숲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행사 및 공연을 유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찾아 오고,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울산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숲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화장실 설치요구가 가장 많은 바, 화장실 2개소 설치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이며, 또한 울산숲 인근 병원, 카페 등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숲 이용자 편의를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안내판 등 각종 안내판 및 현수막도 전 구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숲 CCTV 설치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이며,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설치를 위해 울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울산숲 단절구간에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관련부서에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당초 울산숲 조성 계획에서는 이화정 구간과 신천 구간, 호계 구간과 송정 구간 사이에 각각 울산시가 추진하는 '바람길숲'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음. 이화정·신천 구간 사이 중산IC지구 바람길숲의 조성이 마무리된 것과 달리 호계·송정 구간 사이 바람길숲은 여러 문제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하여 울산시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바람.

A2) 동해남부선 폐선부지(호계 ~ 송정)구간인 창평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현재 울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용역 중에 있어 당초 울산시에서 계획 중이던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창평 구간 숲 조성 등 사업추진을 울산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Q3) 현재 열섬효과를 차단해 기온을 낮추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도시숲이라는 의견이 많아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될수록 도시숲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TO)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최적 면적을 15㎡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올해 예정된 울산숲 송정구간 조성이 완료되면, 북구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추가로 울산숲 혹은 도시숲 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

A3) 2024년 2월 기준 북구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302.71ha로 1인당 13.94㎡이며, 송정구간(3.2ha)이 조성완료되면 총 면적 305.91ha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4.09㎡가 됩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트램 2호선 노선 최적지를 선정 및 검토 중에 있으며 2025년 9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2.6km의 송정에서 효문까지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추가 울산숲 조성 등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면질문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질문일시 : 2024. 5. 29.

질문요지 : 무릉테니스장 철거 이후 대응 방안에 관하여

무릉테니스장 철거 이후 대응 방안에 관하여

공공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운동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활성화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여가활동으로 체육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이는 주민 건강과도 직결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천동 구청장 취임이후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공공체육시설이 두곳이나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한 2023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건립 당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 맞게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데, 불법으로 몰아붙여 그 아까운 공공체육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민(주민)은 없고, 오로지 법의 잣대만으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내 단 2곳뿐인 공공테니스장 가운데 하나인 무릉테니스장은 지난해 장마와 폭우로 지반 일부가 유실되고, 코트가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복구는 안전상의 이유로 1억 7천500만원을 들여 2024년 1월 무릉테니스장을 철거했습니다.

(사)울산광역시테니스협회에 따르면, 북구테니스협회에는 북구 내 거주자 및 직장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7개 클럽 4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릉테니스장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의하면 무릉테니스장은 클럽회원 180여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3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릉테니스장의 철거로 이들 모두 1곳(상안테니스장)의 공공테니스장을 나눠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릉테니스장 철거 이후 북구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1)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26일 무릉테니스장을 철거한 이후 4월 중순부터 8억 원을 들여 '무릉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를 진행 중인데 해당 공사의 개요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A1)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무릉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
- 위 치 : 북구 신현동 산210-3번지 일원
- 공사기간 : 2024. 4. 18. ~ 2024. 8. 15.(120일간) (공정률 30%)
- 공 사 비 : 737백만원(도급 527, 관급 191, 용역* 15, 기타 4) (예비비900백만원)
- * 용역 : 폐기물처리, 재해예방기술지도, GIS DB구축, 화장실 이설

○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2024년 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관계 기관·부서 협의 완료하고, 3월에 예비비 사용 승인 및 계약 의뢰를 진행 하였습니다. 4월 18일에 공사 착공하여 공사 공정률은 약 30%로 PC암거(114m)의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U형측구 설치중에 있습니다.

Q2) 무릉테니스장 철거 결정이 내려지고 무릉테니스장 이용 테니스클럽 회원 및 동호인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13일 비대위의 기자회견 이후 비대위와 어떠한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A2)

구분	일 시	장 소	참석 인원	논의내용
1	'23.12.13.	3층 다목적 회의실	14명	- 무룡테니스장 철거반대 ☞ 무룡테니스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중지가 필요 ☞ 무룡테니스장의 철거는 안전 및 배수로정비 공사를 위해 필요
2	'23.12.19.	구청장실	12명	- 무룡테니스장 철거반대 및 재건립요구 - 지속적인 월간 간담회 요청 ☞ 무룡테니스장의 철거는 안전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위해 필요 ☞ 재건립은 배수 정비공사 후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확보 될 때 신속하게 재설치 검토
3	'24.02.29.	구청장실	8명	- 무룡테니스장 공사 추진현황 문의 및 재건립 추진 일정 요구 ☞ 재건립은 배수 정비공사 후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확보 될 때 신속하게 재설치 검토
4	'24.05.17.	문화체육과	4명	- 무룡테니스장 공사 추진현황 문의 및 재건립 추진 일정 요구 ☞ 재건립은 배수 정비공사 후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확보 될 때 신속하게 재설치 검토

※ 방문 이외에 유선으로 수시 통화하여 공사현황 및 일정 설명

Q3) 배수관로 및 사면 정비공사를 마치면 바로 원위치에 무룡테니스장을 건립할 것인지, 무룡테니스장 재건립을 위한 절차와 일정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A3) ○ 무룡테니스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등에 의거한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 무룡테니스장의 건립위치는 관련법령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
-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확보 될 때 신속하게 재설치 검토 ⇒ 예산확보 필수.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6회 임시회(2024. 2. 16.)
발언요지 : 울산 복구 교육의 질,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울산 복구 교육의 질,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북구는 여전히 교육시설 부족과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매곡·호계지역 100여명이 넘는 신입생들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이화중학교에 배정되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화중학교의 교통안전 대책과 지원은 주먹구구식으로 뒤늦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정지구의 유일한 중학교인 고현중학교는 현재도 포화 상태입니다. 고현초·화봉초·송정초 졸업생들은 내년에도 같은 학군이라는 이유로 가까운 고현중을 두고 실질적 거리가 매우 먼 화봉중·연암중에 배정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학업에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언제까지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지내야 합니까? 「교육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중산중·고교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후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는 '중산지역 교육여건 개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청과의 실무적인 문제, 주민 합의의 어려움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이 직접 구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리 복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복구위원회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6회 임시회(2024. 2. 16.)
발언요지 :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기원하며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기원하며

울산 복구 달천에서 전승되어 온 '울산쇠부리소리'가 지역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도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울산쇠부리기술과 함께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철이 많이 생산되기를 바라는 '풍철기원의례'로써 국내에는 단 하나밖에 없어 역사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사나 악보가 전해지지 않은 채 구전으로만 전해져 소멸 위기를 겪었습니다. 1981년 마지막 불매꾼 고훈재만 옹의 구전노동요가 채록되며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절실합니다. 전통제철기술인 '울산쇠부리기술', 국내 유일의 제철 노동요인 '울산쇠부리소리', '달천철장'과 '대안동 쇠부리터'와 같은 제철 유적, 조선의 철강왕 '이익립 선생'과 마지막 불매꾼 '최재만 옹'과 같은 역사적 인물까지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복합제철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

해 우리는 울산쇠부리역사문화조성에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북구의 중심엔 울산쇠부리의 모태 '달천철장'이 있습니다. 달천철장 유적공원 인근에 철기와 관련된 역사적 상징물 전시를 위한 전시실, 철기문화 체험교육관, 쇠부리 관련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장고와 달천철장 옛터를 재현한 현장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또한 20회를 맞은 쇠부리축제를 업그레이드해 전국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쇠부리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북구의 쇠부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일무이한 '울산쇠부리소리'가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울산시, 우리 북구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울산쇠부리소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시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정환 의원
발언일시 : 제216회 임시회(2024. 2. 16.)
발언요지 : '노동자에서 스마트팜', 농업을 이야기하다

'노동자에서 스마트팜', 농업을 이야기하다

북구 농업환경은 전통적 재배작물인 벼,콩,배추 등과 특산물로는 부추와 호접란 등의 시설·하우스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엔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센서 기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노동력, 에너지 등을 적게 투입하고도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거점으로 김제, 고흥, 상주,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특화 청년창업 보육, 스마트팜 임대, 기자재 실증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 사업 등 관련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확산시켜 농업을 북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차세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은 EU와 비교해 약 4년 정도 뒤쳐져 있고, 2020년 기준 미국 대비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인·자동화 스마트팜이 개발되었지만 소규모 스마트팜의 약 85%는 원격 시설 제어 중심의 기초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 비용 문제로 특히 젊은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울산시는 물론 우리 북구도 스마트팜 기술 도입·확산에 투자하고 퇴직자들과 젊은 세대의 농업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북구 전체 차원에서의 스마트팜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북구에 맞는 발전 방향을 찾아낼 때 스마트팜은 북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손옥선 의원
발언일시 : 제216회 임시회(2024. 2. 28.)
발언요지 : 양정초 토사,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양정초 토사,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양정초등학교는 지난해 폭우로, 인접 아산의 토사가 학교로 유입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당시 떠내려온 토사 때문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양정초등학교는 바로 뒤에 아산이 인접해 있고, 폭우가 오면 토사가 쏟아져 학교가 뺄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폭우의 위력이 더 세지고, 더 잦아지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거세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양정초등학교 토사 문제에 대한 조치를 건의했지만 '산주가 부동의를 해서 어쩔 수가 없다', '향후 소방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라 도로 개설 후 추가 조치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학교 바로 뒤 임야가 교육청 땅이라 우리 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분이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관할 구청장은 지주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선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

해 산주 측에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 내릴지 모를 폭우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방수물품 구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북구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폭우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7회 임시회(2024. 4. 18.)

발언요지 : 집행기관은 구민의 뜻을 담은 5분 자유발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집행기관은 구민의 뜻을 담은 5분 자유발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저를 포함한 8대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느 대수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북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구정에 바로 적용할 만한 실제적인 제안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이 답변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애써 준비한 소중한 제안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는 의원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발언했던 '북구 지역 학교 과대·과밀학급 문제', '경로식당 급식단가 인상', '중대재해 예방 대비' 등 모든 제안들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과 여러 번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이 고심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집행기관의 묵묵부답은 정말 답답할 따름

입니다. 제안된 내용 중에는 집행기관에서 반영하기 힘든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이 안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모두가 각종 업무 및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바쁘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북구 주민들의 불편함을 내버려 두거나 더 나은 북구를 위한 제안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구민을 위해 도움이 되고,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제안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구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회의 목소리가 답 없는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피드백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손옥선 의원

발언일시 : 제217회 임시회(2024. 5. 2.)

발언요지 :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체육시설 할인 요구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체육시설 할인 요구

2024년 2월 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우리 구가 2만 7천여 명으로 3만 명인 남구에 이어 울산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우리 구는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 강습 및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최대 20%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풋살장과 다목적구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대전 유성구와 대구 북구는 청소년과 어린이가 풋살 경기장 이용 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울산 울주군은 풋살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무려 80%의 감면 혜택과 함께 별도로 마련된 풋살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는 '울산

광역시 북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 연령층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연령층이 소외되는 일 없이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서 명시한 자치단체장의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우리 북구 청소년들이 사용료 걱정 없이 풋살장, 다목적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신설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발언일시 : 제217회 임시회(2024. 4. 18.)
발언요지 :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적극 개선해 주십시오.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적극 개선해 주십시오.

청년들 사이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꼽혔던 공무원이 지금은 기피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율은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률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사직도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의원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2020년부터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총 28명이 자발적으로 구청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급증은 낮은 급여와 악성 민원,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연가를 늘리고 승진 속도를 높이는 등 근무 여건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가동한 17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 등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을 붙잡으려는 노력도 엿보이지만, 이 문제를 정부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도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첫째,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강화할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첫발 내디디며 가졌던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북구의 품 안에서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 등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김상태 의원
발언일시 : 제217회 임시회(2024. 4. 18.)
발언요지 : 전동킵보드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동킵보드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킵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무면허 운전, 차량흐름 방해, 보행자 안전 위협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동킵보드는 도심 내에서 이동이 자유롭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동킵보드 사용이 보편화된 것에 비해 안전한 이용 문화는 정착되지 못한 탓에 관련 사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동킵보드 사망사고를 포함한 사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전동킵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

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울산 5개 구·군 중 울주군과 북구만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단 방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대여업체 패널티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동킵보드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용 주차공간 추가 설치와 도로 안전표시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북구가 전동킵보드 이용에 있어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려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김상태 의원

발언일시 : 제217회 임시회(2024. 5. 2.)

발언요지 :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제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제언

북구는 2021년부터는 인구 감소세에 있고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구는 2008년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을 통해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문가 연계를 통해 직장 내 갈등, 임금체불, 의료, 비자, 법률문제 등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심층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해소와 다문화 한부모 가족 증가 등 변화된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된 환경과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북구 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다문화 인식 개선과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북구 맞춤형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의 혜택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포용적 정책 실현을 통해 다문화 사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정환 의원

발언일시 : 제217회 임시회(2024. 5. 2.)

발언요지 : 북구의회 후반기, 미래지향적 북구 발전을 위한 제언

북구의회 후반기, 미래지향적 북구 발전을 위한 제언

제8대 의회 후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북구 의회도 후반기 규정 발전 방향에 대한 고심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북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 보아야 할 사안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구는 전통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자체가 특정 산업에 의존적이다 보니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루속히 안정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로 및 교통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물론, 북구 여러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요 도로의 교통정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도로 확장 및

신설 등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환승체계 개선,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기술 활용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도시재생은 우리가 당연한 또 다른 과제입니다.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 진행과정을 적극 공유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스마트가로등 설치,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후반기에는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함께 힘을 모아 도약합시다!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규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조문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7회 임시회(2024. 5. 2.)
발언요지 :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경계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그리고 학습과 교육환경을 저해할만한 시설의 영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직선거리 200미터' 안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호계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가까운 동대중앙로의 500미터 남짓한 도로변에만 노래연습장, 술집, 성인PC방, 마사지업소 등의 시설을 20개 이상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현행 200미터보다 더 넓게 확대하는 안들이 여러 개 발의되었습니다만,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관내 학교와 주택가 인근 등 학교 통학로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요즘 저출산 문제로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미래의 귀한 인적 자원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발언일시 : 제218회 제1차 정례회(2024. 6. 10.)
발언요지 :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를 전국적 대회로 키웁시다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를 전국적 대회로 키웁시다

최근 SNS를 기반으로 한 운동모임인 '러닝크루'가 확산되면서 달리기 인구가 최대 1천만명까지 늘었다고 할 정도로 전국적인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라톤대회와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으로도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미 특색있는 마라톤대회가 올해로 16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입니다.

전국 300여 개의 마라톤대회 중 해변가를 달리는 마라톤은 있어도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몽돌 위를 직접 달리는 대회는 몽돌마라톤대회가 유일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07년 첫 개최 이후 해를 더해갈수록 대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참가인원이나 예산 지원 등 규모 면에서 울산 내 다른 마라톤대회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제21회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에는 5,000명 출전에 3억 원, 제22회 울산커플마라톤대회에는 2,000명 출전에 9,000만 원의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는 9월 개최될 제3회 울산 동구 염포산 전국마라톤대회에는 참가예정인원 1,000명에 6,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들 대회와 비교하면 몽돌마라톤대회는 턱없이 부족한 살림살이로 인해 참가인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면에서도 북구육상연맹 회원들의 정성과 희생으로 먹거리를 손수 준비하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성장동력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이 그대로 녹아있는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증액을 통하여 전국의 더 많은 마라톤 동호인이 몽돌해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8회 제1차 정례회(2024. 6. 10.)

발언요지 : KTX-이음 정차역 꼭 이뤄져야 합니다

KTX-이음 정차역 꼭 이뤄져야 합니다

울산 북구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울주군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분야 기업이 밀집해 있어 서울, 부산 등 전국과의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북구는 중구와 동구에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7번 국도와 오도밸리로·이예로를 통해 울산 어디로든 단시간 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북울산역과 남창역 모두 추가 건설비용 없이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준고속열차 'KTX-이음'의 운행 특성상 '역간 거리'가 심사시 중요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북울산역, 태화강역, 남창역 세 곳 모두에 정차를 주장하면 오히려 태화강역 한 곳만 선정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북울산역과 남창역 간 역간거리는 운행에 적합한

반면, 북울산역에서 태화강역, 태화강역에서 남창역의 짧은 역간거리는 준고속열차의 운행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화강역이 정차역으로 확정되면 역간거리 문제로 북울산역과 남창역 모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태화강역을 제외하고 북울산역과 남창역 두 곳에 정차역을 유치하는 것이 북구와 울주군에게도, 울산 전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북구도 정차역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야 합니다. 북구와 울주군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권, 지자체, 구민과 군민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KTX-이음 정차역 유치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북구의회도 구민을 위해,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손옥선 의원

발언일시 : 제218회 제1차 정례회(2024. 6. 10.)

발언요지 : 청소년 도박 예방, 우리 모두의 과제!

청소년 도박 예방, 우리 모두의 과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202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도박을 접해보았다고 합니다. 처음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초등학교 4학년, 즉 11살로 이마저도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도박이 전년대비 2배이상 늘어나는 등 그 확산 속도가 견잡을 수 없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 도박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청, 보건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TF팀을 구성하여 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을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다각적 대책 마련으로 청소년 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가정·지역사회에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강력한 단속과 불법 도박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도박 관련 인식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육,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취향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매력적인 대안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인 협력과 일치된 노력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조문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8회 제1차 정례회(2024. 6. 10.)

발언요지 : 진장명촌지구 노후도로 정비를 기대하며

진장명촌지구 노후도로 정비를 기대하며

진장명촌지구는 1998년 울산시로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 시공사인 평창토건의 부도로 사업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없게 됐고, 이어 2019년 사업시행자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마저 파산하면서 26년째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는 사이 진장명촌지구 내 각종 기반시설은 관리주체 없이 노후화되었고, 이에 따른 빗발치는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는 북구가 매년 1억 원 정도의 긴급복구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소규모 보수를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시에서 10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북구 차량등록사업소 앞 교차로에서 평창리비에르 아파트까지 2.1km구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김두겸 울산시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2년여에 걸친 백현조 시의원

님의 예산 확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구청도 울산시처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장명촌지구 내 도로폭 20m 미만 이면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북구청에서도 진장명촌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겠지만, 현실적으로 조합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울산시에서 결단을 내려 노후도로를 정비하기로 하였으니 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시의 사업에 보조를 맞춰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진장명촌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장명촌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김상태 의원

발언일시 : 제218회 제1차 정례회(2024. 6. 24.)

발언요지 :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의 새로운 도약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의 새로운 도약

현재 전국 83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수산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시의 경제규모와 인구에 비해 그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고 울산 전 지역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그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구에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생산자들의 소득을 대폭 증대시킬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매시장의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셋째, 인구 유입 효과입니다.

넷째, 북구의 경제적 중심축 역할을 강화하고 울산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단순한 후보지 선정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차질 없이 건립되어 북구의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8회 제1차 정례회(2024. 6. 24.)
발언요지 :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6월 6일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날은 각 가정과 기관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반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을 합니다. 지난 현충일, 1분간의 묵념에 동참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평소와 같이 그 순간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국선열과 호국보훈이란 말도 낯설어지고 그 숭고한 뜻 또한 우리 일상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북구에는 많은 호국영령이 계시지만 이분들을 제대로 기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도 시나 구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추모사업회

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분들의 후예들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입니다. 우리 이웃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보훈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훈가족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북구와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점점 잊혀가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의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호국보훈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려 노력한다면 울산 북구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계승될 수 있을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8회 제1차 정례회(2024. 6. 24.)
발언요지 : 울산쇠부리축제의 ‘비상(飛翔)’을 위한 쓴소리

울산쇠부리축제의 ‘비상(飛翔)’을 위한 쓴소리

저는 오늘 가장 울산다운 축제로 일컬어지는 울산쇠부리축제가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제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울산쇠부리축제는 이천 년 철의 역사가 시작된 ‘달천철장’이라는 유서 깊은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또한 ‘울산쇠부리소리’와 ‘제철 기술 복원실험’ 등 관람객들이 직접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쇠부리의 고유한 콘텐츠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북구청에 주차를 하게 하고 편리하게 축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달천철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거나 문화재 용도변경 신청 혹은 주변 도로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신선한 콘텐츠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울산쇠부리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통신사의 인구 이동 데이터, 카드사의 소비패턴 데이터 등 다양한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울산쇠부리축제가 새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주십시오. 새로운 울산쇠부리축제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자원으로서 북구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정환 의원

발언일시 : 제218회 제1차 정례회(2024. 6. 24.)

발언요지 : 환경문화 - 물의 길

환경문화 - 물의 길

우리 북구에는 매곡천, 명춘천, 동천, 강동 바다, 그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하천들까지 주민들 가까이 물환경이 있습니다.

매곡천은 야경의 명소로 북구 12경의 하나로 북구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동천은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생태계로 수많은 어류와 수생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명춘천은 폐선부지를 중심으로 '명품길'을 조성, 자연경과 잘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강동 바다는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북구는 해양환경정비와 수산자원 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구의 물환경을 지키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주민

들이 누릴 수 있게 하고 모두가 찾고 싶어 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북구가 추진해 온 길이자 앞으로 더 발전시켜가야 할 과제입니다.

잘 보존된 자연환경은 생태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있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하는 환경문화를 조성합시다.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주민 모두가 노력한다면 우리 북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명품 환경도시 북구를 만들어 갑시다.





1. 4. 농소2동 새해현장토크



1. 4. 농소3동 새해현장토크



1. 5. 농소1동 새해현장토크



1. 5. 송정동 새해현장토크



1. 8. 강동동 새해현장토크



1. 8. 효문동 새해현장토크



1. 9. 2024년 신년인사회



1. 10. 양정동 새해현장토크



1. 10. 염포동 새해현장토크



1. 30. 울산숲 조성 준공식



2. 24.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4. 16. 복지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21. 기박산성 임란의병 추모제



4. 27. 제1회 울산숲걷기대회



5. 2. 제217회 임시회 의사사 방청



5. 4.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큰잔치



5. 10. 제20회 쇠부리축제 개막식



5. 21. 울산숲 가꾸기 자원봉사단체 발대식



5. 30. 2분기 정기자원봉사활동



6. 10.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사 방청



6. 10. 축사건립 관련 진정 민원 논의



6. 13. 북울산역 KTX 정착 위한 포럼



6. 20. 부산북구의회 벤치마킹 내방



6. 24. 6월 의원간담회

북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북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 서비스 내용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 접속경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꼭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 소통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내용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의회사무과(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94 팩스 : 241-8979

농소2·농소3동	비례대표	농소1·송정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농소2·농소3동
				
의 장	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의장실 : 241-8900 010-3854-1103	부의장실 : 241-8901 010-5232-4625	사무실 : 241-8902 010-9697-7139	사무실 : 241-8903 010-7760-6745	사무실 : 241-8904 010-9359-8572
농소1·송정동	농소2·농소3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사무실 : 241-8907 010-3469-1522	사무실 : 241-8906 010-8545-0266	사무실 : 241-8908 010-8610-4748	사무실 : 241-8905 010-4844-540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화 052) 241-8971~8976

FAX 052) 241-8979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과 소통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6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